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7/18℃ 목포 7/17℃ 여수 8/16℃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1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07호 1판 2010년 2월 24일 수요일

한뼘이라도 가까이… 광주·전남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23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서로 정 대표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경선은 '비빔밥 룰'?

원칙없이 갈팡질팡…줄서기·공천 브로커 양산 우려

6·2 지방선거가 D-98일 앞으로 다가온 23일까지도 민주당이 후보선출과 관련한 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처음에는 호남에서 개혁공천을 한다며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공언하더니, 최근에는 계파 이익 등에 휩쓸려 시민배심원에 여론조사, 당원 투표 등을 섞는 절충안이 검토되는 등 갈피를 못 잡으면서 예비후보들의 중앙당 줄서기, 공천 브로커 양산 등 공천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이날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특강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장 경선방식에 대해 예선전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당원경선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활용하자는데 대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1차 예선에 컷오프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도입안이 나오긴 했지만,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당원경선을 혼합하는 방안이 정 대표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민주당이 공천개혁을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시민배심원제 공천이 일부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와 당내 계파 이익 등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혼합된 '비빔밥' 경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 대표는 또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반드시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그 범위는 27개 자치단체장 중 한 자리 수가 될 것이며, 후보가 난립하거나 유력 후보가 없을 경우, 외부 인사 영입, 연대과정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광주시장 경선시기와 관련해 3월28일과 4월11일 두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선관위 위탁과정에서 정해놓은 시점일 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24, 25일께 중앙당 공천심사위에서 경선방법과 시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경선방법 결정이 표류하면서 예비후보들의 중앙당 얼굴 내밀기, 줄서기 등이 심해지고 있다. 공천 및 선거 브로커 양산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풀뿌리 자치 살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정 대표의 국립 5·18 묘지 참배에 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와 입지자를 비롯한 자치단체 후보들까지 몰리면서 정 대표 옆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벌이지는 촌극도 빚어졌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연가까지 낸 뒤 정 대표의 5·18 묘지에 동행하는 등 공천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도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8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조광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 숙성중, 광주동신고 졸업
· 한양대법대, 사법연수원(19기) 수료
· 서울북부지검, 광주지검 등 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전주지검 등 부장검사
· 부산,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조광
변호사 전호천
사무국장 최기조 올림
업무개시 : 2010. 2. 8(월)
업무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대표전화 : (062) 227-0888
팩 스 : (062) 225-9700

■MB정부 2년…광주·전남 현주소

지역인맥 갈수록 쇠퇴 향토기업은 속속 몰락

중앙 부처에서의 지역 인맥 쇠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표류로 인한 정책적 소외, 지역 기업의 몰락. 25일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광주·전남의 현주소다.

〈관련 기사 3면〉

무엇보다 광주·전남 출신인사들이 정부 부처 주요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123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김황식 감사원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 장관 등 10여명에 그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7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임종룡 금융비서관 단 1명 뿐이다. 사실상 청와대와 지역의 소통 창구가 단절된 셈이다.

경제권을 영남은 2개, 호남은 1개로 설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5+2 광역경제권 계획'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표류도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 건설 방침은 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역의 나주 혁신도시 조성 등 기업 유치 노력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잇따르고 있는 향토 기업의 몰락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지역 민심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 및 조선업체들이 잇달아 구조조정 된 후 지역경제는 아직 뚜렷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금호아시아 그룹마저 유동성 위기로 존폐의 기로를 맞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일부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기업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영산강 살리기가 본격화되고, 호남고속철도 완공시점이 앞당겨 진 점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약속 등 노력한 것에 비해 균형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더 부각되는 2년이었다"고 평가하고, "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탕평인사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국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라! 연아 매직

오늘 쇼트 프로그램 출전

김연아(20·고려대)는 24일(한국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밴쿠버 콜리세움에서 열리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싱글 피겨스케이팅 쇼트프로그램에 출전, 금메달 도전의 서막을 연다. 최종 결과는 이날 쇼트프로그램과 26일 열리는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관련기사 18면〉

그는 총 6개조(30명) 가운데 5조에 속해 라우라 레피스토(핀란드)와 아사다 마오(일본)에 이어 세 번째 연기자로 출전한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배경음악인 '007 제임스본드 메들리'에 맞춰 8개의 연기과제에 도전한다.

/서승원기자 swseo@